

“한우 키울수록 손해”…전남 축산농 상경집회 간다

“매달 1억씩 적자” 호소도…12년만에 내달 초 한우 반납 집회 열기로 “사룻값 치솟아 출혈 생산…축산농 20% 폐업 수준” 대책 마련 촉구

전남지역 한우 농가들이 다음달 초 12년만에 전국한우협회 회원들과 함께 ‘상경 집회’에 나선다. 사료가격은 날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 수요가 줄고 도매가마저 급락해 소를 키울수록 적자가 나는 상황에 이르자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10일 전국한우협회 광주전남도지회에 따르면 전국한우협회 15개 회장단은 지난 5일 긴급회의를 열고 다음달 초 상경해 대규모 ‘한우반납집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우를 정부에 반납해, 한우 가격을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회 관계자는 “7월 초에 서울에 올라가서 한우 반납집회를 열기로 했다. 정확한 날짜와 구체적인 안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2012년 이후 12년만에 한우반납집회를 연다. 당시 전국 한우농가는 한우 가격 폭락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등에 반발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으나, 경찰이 전국 고속도로를 차벽으로 차단하면서 무산됐다.

축산 농가가 나선 이유는 이번에도 만성적인 적자 때문이다.

김동구 전국한우협회 영암군지부장은 “더 이상 줄라 땀 흘리지도 않다. 거세우(거세한 수소) 한 마리를 키워 팔면 200만원씩 손해가 난다”면서 “심지어 1000여마리 소를 키우는 한 농가는 매달 1억원씩 적자가 나서 지난 1년 동안 12억원이 넘는 손해를 본 경우도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영암지역에서 울들어 축산 농가 3곳이 소를 처분하고 축사를 매물로 내놓기도 했다.

축산 농가들에 따르면 소 한 마리를 출하할 때까지 사룻값 600만원이 들고 송아지 구입비 평균 350만원을 더하면 총 950만원이 총비용이다.

하지만 최근 소 한 마리 팔면 잘 받아야 800~900만원이며, 등급이 한 등급이라도 아래로 떨어지면 700만원으로 가격이 떨어진다. 결국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연승 전국한우협회 장흥군지부장은 “30여년 전 한우 도매가 폭락 사태를 떠올릴 정도로 한우 농가가 위기다”며 “나도 2년 전만 해도 한우 150마리를 키웠는데, 최근에는 80마리로 줄었다”고 탄탄했다.

최근 3년 사이 한우 도축 마릿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일 공개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우 축산관측’ 자료에 따르면 한우 도축 마릿수는 2021년 87만 2000마리, 2022년 86만 9000마리, 2023년 92만 9000마리에 이어 올해는 97만 5000마리로 추정됐다.

반면 도매 가격은 하락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포털의 ‘소 유통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7월 기준 소 평균 도매 가격은 1kg당 1만 4697원이었다. 같은 날짜 기준 2021년 1만 6352원, 2022년 1만 9976원, 2023년 1만 6101원 등 줄곧 내리막이다.

소비자 가격 또한 지난 7월 기준 한우 등심은 1kg당 8만 2780원으로, 2021년 10만 3774원, 2022년 10만 2690원, 2023년 8만 9550원에 이어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도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 ‘축산물생산비조사’에 따르면 2023년 송아지 마리당 생산비는 497만원으로 전년 대비 59만 8000원(13.7%) 증가했다. 한우 비육우 생산비는 생체 100kg당 129만원으로 전년 대비 3000원 감소했으나, 이는 송아지 산지가격 하락



한우 가격 폭락으로 전남 한우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10일 광주시 북구의 한 한우 농가에서 소가 여물을 먹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으로 인해 비용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비육우 배합사료비는 2022년 kg당 570원에서 2023년 586원으로 2.9% 증가했으며, 자가노동단가 또한 2022년 시간당 2만 1609원에서 2023년 2만 2460원으로 3.9% 증가했다.

이 때문에 올해 기준 한우 비육우 마리당 순수익은 -142만 6000원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전년 -69만원에 비해 73만 6000원 감소한 수치다.

윤순성 협회 광주전남도지회장은 “전남 한우 농가의 20% 정도가 폐업 수준을 밟고 있다”며 “정부에서 FTA 피해보전금 명목으로 주고 있는 한마리당 5만원 꼴의 지원금으로는 한 마리당 발생하는 200여만원 적자를 도저히 메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임창용 “드라마 카지노처럼 당했다”

“일부 변제, 사기 아냐” 주장에 채권자 “받은 적 없어”…법정 다툼 예고

사기혐의로 법정에 선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8)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서 법정다툼을 예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방영된 OTT 드라마 ‘카지노’ 피해자처럼 자신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임씨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난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 A씨에게 8000만원을 빌렸다고 보고 사기혐의로 기소했다.

임씨는 10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사실관계가 다르다. 사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임씨는 일단 필리핀에서 바카라 도박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채권자 A씨는 드라마 카지노의 최민식 배우와 같은 업자라는 것이 임씨의 설명이다.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나중에 갚도록 호의를 베풀 뒤 막상 돈을 잃고 나면 온갖 수단을 동원해 금품을 뜯어내는 수법이다.

그는 “A씨는 지인이 아니며 카지노에서 처음 본 카지노 관계자”라며 “돈도 현금인 아닌 칩으로 받았고 당시 변제능력은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1억 5000만원의 변제를 요구했지

만, 당시 페소 환율을 적용해 빌린 돈 7000만원을 갚았다”면서 “다만, 경찰조사 단계에서 A씨와 대질심문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임씨의 국선번호인도 “도박 채무는 법적으로 채무가 아니다”면서 “임씨는 A씨가 요구하는 금액의 절반 가량을 변제해 A씨를 속이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재판의 쟁점으로 ‘타인을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꼽는다.

도박 채무가 민법상 불법원인 급여(사회상규에 벗어난 불법적인 원인에 의한 급여)에 해당할지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돈을 빌린 당시 임씨에게 변제할 재산이 있었는지 관건이다.

A씨는 “임씨에게 현금 8000만원을 빌려줬고,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고 잘라 말했다.

임씨의 두번째 재판은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검, ‘유형가 칼부림 사건’ 심층 수사 나선다

조직폭력배·유형가 수사로 확대

‘광주 유형가 칼부림 사건’(6월10일자 광주일보 6면)이 조직폭력배·유형가 수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날 오전 9시 대검에서 이종혁 광주지검장을 만나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상황을 들었다.

검찰총장이 광주지검장으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고 사건에 대한 대응을 주문한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다.

이 총장은 “초동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살인 사건 자체는 물론, 사건의 발단과 배경이 된 유형업소 이권 다툼 과정에서 불법과 배후 폭력조직 개입 여부까지 철저히 수사해 근절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유형가 주변 불법 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총력을 기울여 엄정 대처함으로써 동종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특히 도심에서 보도방 업주간의 칼부림 사건으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조짐이다.

최근 검찰이 민생침해 범죄와 전횡을 선언하고 마약·보이스피싱·전세사기·스토킹·성범죄 등에 강력대응 하고 있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광주지검은 우선 구속영장 심문에 강력 사건 전담검사를 투입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검찰은 또 광주지역 유형가를 중심으로 속칭 ‘보도방’ 업주와 조직폭력배 등의 관련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 흥기를 휘두른 가해자(보도방 업주)가 수십년 전 조직폭력배와 가깝게 지낸 전력이 있어 검찰이 사안을 깊게 들여다 볼 것으로 관측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검찰 관계자는 “민생안정을 중요시 하는 검찰총장이 각별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광주지검은 사건 발생 초동단계부터 사안을 예의 주시해왔다.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점단지구 유형가를 비롯해 광주지역 유형가 불법 영업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한편, 지난 7일 오후 7시 30분께 점단지구 한 유형업소 앞에서 보도방 업주 A(58)씨가 40대 남성 2명에게 흥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유형업소와 보도방 업주들의 갈등을 중재하려 나선 A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남성들에게 흥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A씨를 구속해 수사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치매 노모 차 태워 바다 돌진…무안서 2명 사망

아들 2명이 치매를 앓는 노모를 차에 태우고 바다에 뛰어들어 50대 큰아들과 노모가 숨지고, 40대 작은 아들은 어민에 의해 구조됐다.

목포해경은 A(48)씨를 존속 살해, 자살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무안군 현경면 홀통선착장에서 SUV차량에 70대 어머니와 50대 형을 태운채 바다로 주행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민의 도움으로 구조됐지만 뒷좌석에 타고 있던 어머니와 형은 숨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최근 어머니의 증세가 심해지면서 모시기 힘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주시에서 형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던 A씨는 이날 무안군 선착장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02-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